

## 천천히 삼시다

- 방선기 목사 / 2001. 10. 9 -

콜롬비아대학교 교육학 박사, 현 이랜드 사목, 직장 사역연구소(BM)소장)

요즈음 우리생활이 너무 분주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느림의 가치를 주장하는 책들이 인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사서 읽었는데,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의미를 빨리 알려는 마음에 급하게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후딱 후딱 페이지를 넘기다가 문득 그런 나 자신을 보고 경연쩍게 웃어버리고 말았지요. 느리게 살자는 책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급하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빨리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항상 속도를 빠르게 하려는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이나 휴대폰의 보급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빠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신용카드 같은 것도 결국은, 지금 돈이 없지만 물건을 빨리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급한 마음을 채워주는 도구입니다. 청바지도, 입고 다니다보면 자연스레 색도 바래고 찢어지기도 할텐데,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처음부터 일부러 바래고 찢어진 청바지를 만들어 팝니다.

"빨리 빨리"라는 책에서는 이런 우리 사회의 조급증을 비판하면서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황폐해간다고 안타까워했는데, 오늘은 우리의 이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빨리 빨리"입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반면, 온갖 부실공사와 IMF로 상징이 되는 우리 문제의 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나타납니다. 이규태씨는 우리들이 사탕을 진득이 빨지 못하고 깨물어 먹거나, 잔디밭의 모서리 부분을 가로질러가는 것을 그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성질이 급한 것만이 문제라면 그래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매사에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 과정을 무시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음주문화, 교통사고, 과외공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앉은자리에서 몇 분이면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결국은 과정을 무시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정이야 어떨든 좋은 학교에만 가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온갖 사교육이 판을 칩니다.

논술시험을 위해서 반짝 과외가 있다는 것도 놀랄 일입니다.

이러한 조급증은 우리 영적인 면에도 나타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양적인 성장이며 그것도 남보다 빨리 성장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성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세미나들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는 듯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을 리가 없을테니 말입니다. 아무래도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빨리 빨리"를 요구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인 듯 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생활에도 우리의 템포는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바빠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기간에 영적 성장을 이루려는 조급함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하기보다는, 특별한 집회에 가서 단번에 영적인 성숙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집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일상에서의 경건 생활이 무시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성령충만은 지속적인 상태인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빨리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빠른 시간에 읽을 수 있는 비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성령충만을 받고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귀한 소원이지만, 그러나 뭐든지 빨리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대의 풍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든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느린 것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자칫 나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황포"라는 책에서 벅크스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속도에 열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할 때나 요나와 같은 신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으면 후딱 해치울 일을 그분은 땀을 들이시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하늘의 군대를 부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적 못지않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 그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긴급성을 놓쳐서는 안되겠지만 "빨리 빨리"가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긴 안목을 가진 주님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목적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읽어보아야겠습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